

바이든 “우크라 지속 지원”...젤렌스키 “주권·영토 타협불가”

패트리엇 미사일 포함 2조여원 추가 지원
젤렌스키 “패트리엇, 방위 강화 핵심 수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데 열려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85억 달러(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 가운데 단일 지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원 패키지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포함될 것”이라며 “패트리엇 포대를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또다른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겨울을 무기로 만들고 있으며, 사람들을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결을마다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이 이어지는 한 당신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단결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단언했다.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두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지만, 이는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물리는 옳은 일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돕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느낄 때, 그는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연합뉴스

장에서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푸틴은 서방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다”며 “그

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가 서두를수록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그때가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 지원과 관련해

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NATO를 포함해 유럽 핵심 동맹과 조율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또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3차 세계 대전을 원치 않는다”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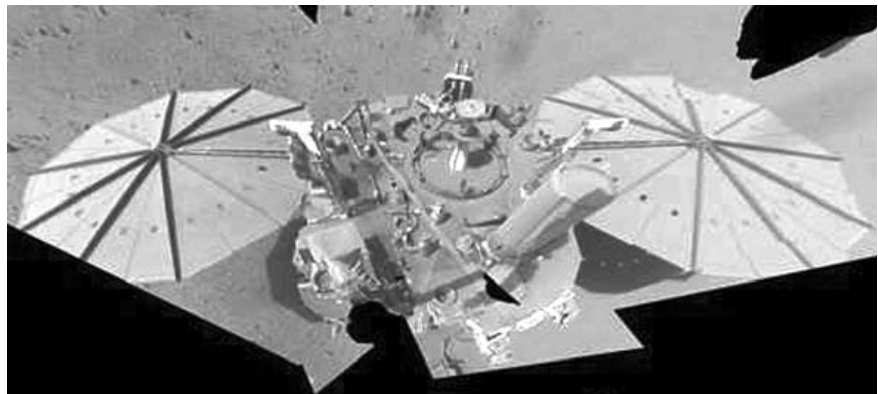
미국에 감사의 뜻을 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은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단지 평화를 위해 내 나라의 영토와 주권, 자유에 대해 타협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특정한 방안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히며 “우리가 평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에 특정한 조치를 요청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평화”라고 전제한 뒤 “전쟁은 거대한 비극으로,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자식을 잃은) 더 많은 부모가 복수를 바란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부과되는 ‘그냥 평화’(just peace)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00일에 맞춰 전격 이뤄진 두 정상의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연합뉴스



美 화성탐사선 ‘인사이트’ 가동 중단

4년 만에 임무 종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InSight·사진) 가동이 중단돼 4년 만에 탐사 임무를 종료했다.

NASA는 21일(현지시간) 인사이트가 화성 탐사 임무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26일 이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한 지 4년여 만이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인사이트에 2건의 메시지를 보내 통신 접촉을 시

도했으나 이 탐사선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NASA는 인사이트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무 종료를 선언했다.

인사이트는 원래 2년 동안 가동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두 차례 임무 기간을 연장해 가동됐고, 결국 본체의 태양 전지판에 화성 먼지가 쌓이면서 연내 동력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토머스 주버천 NASA 과학 담당 부국장은 “인사이트호 발사와 화성 착륙을 지켜봤다”면서 “탐사선과 작별하는 것은 항상 슬픈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국제협력 강화해 방역·의료물자 합리적 수입”

감염자 급증 속 서방 mRNA백신에 문 열지 주목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의약품과 방역 물자를 합리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22일자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중의 방역과 의료 물자 수요를 확실히 보장하고 관련 기업의 전속력 생산을 지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급히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으로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방역 완화 조치 시행 이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사재기가 지 더해지면서 해열제와 독감 치료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 수급난을 겪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인 파스로비드의 인도산 복제약 구매 대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정상적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짜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원이 시급히 필요한 의약품 등의 수입을 언급한 것은 우선 치료제와 해열제 등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국산 백신에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시노팜(중국의약그룹)과 시노백(科興中維) 등 자국 제약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그동안 집중해왔지만, 전통적 불활성화 방식인 중국산 백신이 효과 면에서 서방 제약사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중국 백신 지원 의향을 밝힌 데 대해 “현재

백신 강화 집중(부스터샷)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의약품과 검사 시약은 전반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 이동이 이뤄질 춘제(春節·내달 22일) 연휴 기간을 앞두고 농촌 고령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산 백신에 문호를 열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중국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방중했을 때 중국 내 독일 등 서방 국가들에 한해 화이자·바이오텍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총리의 ‘건방진 놈 욕설’ 속기록 사본, 8천만원에 팔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야당 대표를 겨냥해 내뱉은 욕설이 포함된 국회 속기록 사본이 자선 경매에서 8천만 원에 팔렸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22일 아던 총리가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에게 ‘건

방진 놈’이라고 혼잣말처럼 한 발언을 담은 국회 속기록 사본이 뉴질랜드 전립선암 재단을 위한 트레이드미 온라인 경매에서 10만100달러(약 8천만 원)에 팔렸다고 전했다.

문제의 욕설이 포함된 속기록 사본에

는 아던 총리와 시모어 대표의 서명이 담겨 있다.

이 속기록 사본에 대한 경매는 지난 15일 시작돼 이날까지 입찰이 무려 282차례나 이루어지는 등 열띤 경합 양상을 보였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 때 나왔다.

시모어 대표와 열띤 질의응답을 벌이던 아던 총리가 자리에 앉으면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옆에 앉아 있던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에게 ‘건방진 놈’이라고 내뱉은 게 국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구설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일본 의료가기인중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압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랩 마사지 / 2중로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압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랩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

CMYK